

# 2025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9.18. 14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9/10	2	2	13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구종상, 최은수,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심의부장, 시청자센터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7	-	-	-	17	-	17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7	-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p>뉴스투나잇 「에너지 공기업도 잇단 중대재해...」가장 높은 패널티"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경영진 책임 강화 방침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형식적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까지 함께 조명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단지 개별 사고에 대한 보도가 아닌, 구조적 문제와 정책 과제를 아우른 종합 보도라는 점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보도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자칫 상징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임태순 위원)</p>	<p>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 [프리즘]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프리즘]산업현장서 목숨 잃는 노동자들...중처법에도 실행 단 1건, [프리즘] 초강경 대응에 숨죽인 건설업계..."근본적 문제도 손봐야" 주제로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았습니다.</p> <p>&lt;25.8월 조치&gt;</p>	'25.8월
보도	<p>뉴스투나잇 포인트뉴스에서 상반기 마약 적발 '역대 최대' 중남미발 급증, 어린이용 보드 게임, 와인병에 마약을 담은 실제 영상 등은 모방의 위험이 있으니 적발된 밀수품 영상은 직접 보여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마약의 폐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기적으로 마약 관련 기사 (마약 첫 투약 장소 및 연령, 지역, 부작용 등)를 다뤄 주셔서 연합뉴스 TV 시청자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백명희 위원)</p>	<p>마약성 의약품 불법 해외직구...'환각파티' 10대 등 적발, 해외여행 중 전자담배·음료 받았다가...자칫 마약사범, 전문가의 인터뷰 마약의 심각성 내용을 같이 보도하여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복용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드시 처벌되다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p> <p>&lt;25.9월 조치&gt;</p>	'25.8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5. 01. 01.~ '25. 12.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대운변호사	-	18.7.1.~26.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해임(출산)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빙교수	-	23.02.01~27.01.31
최미연	1983.09.05	(현)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4.09.01~26.08.31
김정원	1993.03.07	(현)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신규 선임	25.09.01~27.08.31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5. 1. 1.~ '25.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구종상	현)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전)MB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언론 학술	
부위원장	최은수	현)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석학교수 전)MBN 보도본부장	AI경영학회	경제	
위원	이경화	현)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전)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학부모정보감시단	학부모 단체	
위원	김광석	현)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교수 전)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위원	전계순	현)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전)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 단체	
위원	김병수	현)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단체	
위원	안서연	현)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백명희	현)도담약국(김포) 대표 전)대구 파티마병원 약제과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과학기술 단체	
위원	박세진	현)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장 전)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문화 단체	
위원	임태순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평가실장 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개발팀장	좋은변화	인권 단체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프라임, '시각장애인 동반자 안내견...없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아쉬웠던 점은 출입 거부 사례나 안내견 방해 사례를 짚어주면 왜 "없는 것처럼 대해달라"는 요청이 절실한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안내견 훈련 비용, 국가 지원 현황, 훈련사 양성 문제 등 정책적 과제를 병행 소개했다면 단순 홍보를 넘어 공익 보도로서 무게감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콘텐츠 안에서 설명을 잘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여겨졌고 다만,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짧은 리포트 형태여서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디지털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프리하게 필요하고 길게 좀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보도는 안 내건 제도를 알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태도와 배려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와 의미가 큼니다. 다만, 통계·정책적 맥락 보완,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강화, 현장 체험형 보도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시청자에게 더 깊은 울림과 설득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종상 위원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중국 전승절과 김정은의 방중 일정을 입체적으로 잘 보도. 이동과정에서 나온 "장기이식으로 불멸" 녹취를 포착해서 보도한 것을 비롯해 북중회담, 북러회담, 노동신문 보도내용, 김주애와 김여정 동행, 생체정보 누출 우려 의자 닦기, 회의장 온도조절 실량미 등 세세한 내용까지 클로즈업 보도를 통해 관심사를 잘 반영하였습니다.(최은수 부위원장)	시진핑, 푸틴 전승절 행사가 엄청난 이벤트였는데 저희도 이 시기에 특보 체제로 한 3일 정도 뉴스를 운영했어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저희가 이 보도가 좀 더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차별화가 됐었냐면 저희가 전승절 리셉션에 대한민국 언론 중에 유일하게 저희만 리셉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취재기자인 베이징 특파원과 카메라기자 둘이 들어가서 그 영상을 단독 촬영했어요. 그 안에 있는 리셉션 영상들이 일부 풀영상 빼고 외신에서 들어온 영상 빼고는 저희가 직접 찍은 영상으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중국을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그 열차, 그 영상도 저희가 그걸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현장의 재구성] 기획보도 돋보여, 강릉 가뭄 물 절약 동참...내용을 다양한 영상과 뉴스 정보를 결합해서 실감나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자막과 인터뷰 방송.정청래 vs 장동혁 강대강 대치...서로의 워딩과 중요 장면을 동원 현장 상황을 실감있게 보도. 이 같은 [현장의 재구성] 코너를 특화시켜서 다른 방송국과 차별화하면 좋을 듯 보입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현장의 재구성'은 일주일에 세 번은 만듭니다. 저희가 만드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전날 오후에 기획을 해서 당일, 다음 날, 하루 종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굉장히 만들기가 힘든데 이게 정치 사안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잖아요. 만드는 PD들이 다루는 거를 항상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벼운 걸로 많이 만들다가 제가 그래도 우리가 정치 사안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을 많이 다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짤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이러는 거니까 가급적 힘들더라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현장의 재구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바이럴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	시청한 '기관사실 CCTV 없어'(8.22) 청도 사고 사건. '단독보도'라는 표시가 눈에 시청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코레일노사는 2015년 기관사실 CCTV 설치를 합의하여 촬영장치 의무화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도 철도 사고 경위를 파헤친 것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CCTV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안전강화 설치 의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미설치가 가능했던 것은 시행령 부칙에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조항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부재로 우리 사회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사고는 법적 장치의 모순을 악용한 사고 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유익한 기사라고 판단합니다.(이경화 위원)	신속하게 국회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 기사에 있어서는 제도적 사각시대, 법적 미비점 등을 파악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관심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		
보도	용인 오피스텔 30대 여성 살해범(8.22) 사건, 본 사건을 접하면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여성피해자의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5월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보복범죄로 살해 당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위험을 느낀 여성의 신고에 대한 경찰 처리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늘 혼자 사는 여성/어르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안심도우미 등)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신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성의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경찰의 대응에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논란이 많은데 추후 기획 형태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대한 미흡이 문제인지, 경찰행정제도의 부재 타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보도이길 바랍니다.(이경화 위원)				
보도	[연합뉴스TV 스페셜] 391회 : 조국이 당신을 모십니다 120년 만의 귀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독립조국을 보지 못하고 낯선 해외에서 숨진 애국지사6인에 대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망하고 그 분들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는 과정을 약 27분간 보여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립지사들이 해외에서 자신의 가정과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김으로써 현재의 대한민국이 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땀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약 203여 위의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외국에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기에 연합뉴스TV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희망합니다.(김광석 위원)	저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가지고 연합뉴스TV 스페셜 PD들이 만드는 제작물로 만든 다큐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렇게 내용을 쭉 봤는데 일제강점시대 때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미국에 건너와서 광복 해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지사였습니다. 그동안 세크라멘토의 무덤에 있던 그 유해를 이번에 우리 국가보훈부가 가져오는 그런 이제 뜻깊은 행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주제인데 현장에 직접 PD가 가서 촬영을 해서 굉장히 어떤 의미 있게 좀 풀어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가짜 신고에 하루 평균 14번 출동...공권력 낭비에 안 보이는 피해까지. 보도에서도 언급했지만, 폭발물 협박 및 허위 신고에 대하여 외국의 대처 사례 언급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의적절한 보도로 사료됩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의 폭발물 협박과 허위 신고의 억제 방안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국민의견수렴과 국회가 입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속보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김광석 위원)	뉴스 프리즘은 기자들이 출연을 해서 한 세 꼭지 정도로 만드는 조금 심도 있게 만드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고 그것들을 좀 모아서 뉴스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공권력 낭비가 심하다는 사실은 좀 놀라울 만한 일인데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회가 입법을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저희가 더 추가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KT 소액결제 피해 부천에서도...범행 수법·주체 오리무중,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통신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대응만 있을뿐~ 이번 사고의 정확한 실태, 해킹 가능성, 대응 경과 등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연합뉴스TV에서 전반적으로 기사를 정리하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전계순 위원)	한동안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이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KT대표가 대고객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사과까지 했어요. 전반적으로는 저희 기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초기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 난 다음에 대응이 부적절하고 느리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보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계속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종적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계속 관련 보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 스페셜] 392회 : 별을 쓰다 내일은 슈퍼스타, (김병수 위원) 이번에 개최한 제1회 연합뉴스TV 뮤지컬 콩쿠르는 국내 뮤지컬 작품들을 빛낼 미래의 뮤지컬 배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제2회 제3회 대회를 통해 K-뮤지컬을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인 배우들을 계속 발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김병수 위원)	연합뉴스TV가 처음으로 올해 1회 뮤지컬 콩쿠르를 개최를 했습니다. 박칼린 배우를 선정위원장으로 모셔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아마추어들을 상대로 대회 첫 대회를 열었고요. 저희가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문화 사업 쪽에 언론이 건전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첫 행사가 이번에 열렸고 그 과정을 저희가 연합뉴스TV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한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문화와 관련 일들을 콘텐츠로 만들었는데 좋게 봐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중대재해처벌법 3년...처벌 강화에도 줄지 않는 산재,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예방 지원예산 대폭 확대, 위험성 평가 안정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공공조달 계약시 무사고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업안전재해 예	뉴스 프리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다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보도의 하나의 테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물론 그 보도를 단발적으로 리포트나 단신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뉴스프리즘이나 이런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서 한 번씩 짚어주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을 위한 기업들의 목소리,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여 정부의 정책 입안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김병수 위원)	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위원회때 한번 이걸 다뤄보겠다고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다다를 이야기] "8억짜리 새 집...전체 하자12만건" 준공일 맞추느라 중대재해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2,600여 세대 오피스텔 하자 문제에 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전체 하자12만 건'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시청자에게는 그 심각성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함께 제시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준공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통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와 비교하여 이번 사안의 비정상적인 측면을 부각했다면, 보도의 설득력이 한층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공사 측이 서면 답변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언론의 역할이 더욱 돋보였을 것입니다.(안서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도 좀 비교를 했으면 조금 더 좀 쉽게 와닿을 수는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다다를 이야기'라는 이 코너가 TV코너는 아니고 디지털로만 나가는 말랑말랑한 좀 그런 코너인데 가급적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사람들의 육성을 많이 들려주고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아이টে이요. 그래서 콘텐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현장성 있는 걸 살리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뺐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도	[정신채린! 삶의현장] "우리 개 입에 다른 개 털이..." 금쪽건'환골탈태' 대작전, 반려견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견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초반, 실제 사고 사례를 담은 보도 영상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점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닌,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	'정신채린! 삶의현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자를 한번 현장에 보내서 만들어 봤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고자 하는 제작진의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특히,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법을 제시하고 실용적인 팁을 알려준 부분은 유익했습니다.(안서연 위원)				
보도	[현장의재구성] 한국기업 덮친 美 이민단속'공포'...동맹·투자, 다 필요없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 기업 투자 현장 급습 사태를 다룬'현장의 재구성' 보도는 미국의 기관 홈페이지 관련자의 SNS, 워싱턴 영사, 외교부 장관 등의인터뷰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짧은 콘텐츠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규모 투자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미국의 행태를 잘 정리하여 보여준 것 같습니다.(안서연 위원)	'현장의 재구성'이라는 코너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3건 정도 만들어서 TV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터진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를 빨리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코너인데요. 콘텐츠가 즉각성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	이 시각 핫뉴스, 질문에 말 없이 응시 '젠지 스테어'...Z세대 소통방식, 공감하거나 Z세대를 비판하는 글이 국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순식간에 Z세대의 사회성 논란을 상징하는 '밈'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스마트폰을 끼고 산 여파라고 해석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언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 없이 빨리 쳐다보는 것이 과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이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빨리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도록 집에서 지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	요즘 어떤 세대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인데 전문가의 스마트폰을 계속 끼고 사는 여파여서 이런 게 일반화됐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전문가의 진짜 정 확히 어떻게 멘트를 했는지 이런 것 들을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 줬으면 더 친절한 기사가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는 '이 시각 핫 뉴스'라는 프로그램이 아침에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서 캐스터가 한 3건 정도 기사를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가는 기사여서 우리가 이것 짚어줬으니까 한번 연합뉴스에 들어가서 기사를 봐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코너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기사에 대해서 좀 짧게 정보가 나갔다고 생각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게 되는 좋은 기사였습니다.(백명희 위원)	이 드는데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은 이런 형식의 코너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만들려다 보니까는 좀 짧게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던지는 그런 느낌의 코너입니다.			
보도	뉴스리뷰, 이 대통령 "노조 자녀 특채, 불공정의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 대책을 공개토론했습니다. 그 중에 노조 자녀 특채 논란에 대해 직접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된 보도를 보았다며 이것은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노동계에서는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챙기는 일에 대해 경계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노동계의 고용세습 같은 낡은 단협 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여 공정 경쟁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연합뉴스TV에서도 관련 기사를 한 번씩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백명희 위원)	노조 자녀 특혜 논란 관련 기사는 최근에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더 이야기가 됐는데 공정과 관련된 문제는 언론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이 관련된 사안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정부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채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을 중심으로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체계적으로 조망한 보도를 내놓은 점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케데헌의 글로벌 흥행을 시작으로 K-pop, K-관광, K-푸드, K-뷰티 등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취재해 콘텐츠 한류의 확장성에 대해 시의성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보도에서는 케데헌의 성공 이면에 자리한 K-지식재산권(IP) 문제를 심도 깊	K컬처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뜨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박진영 가수, 지금 제작자인 박진영 씨를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아마도 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뉴스 프리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앞으로 K컬처를 전 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 있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게 다룬 점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국내 창작자의 IP 권리 강화', '플랫폼 주도권 확보', 'K-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가 주길 기대합니다.(박세진 위원)	는 기사를 제작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9월 3일 뉴스 「스마트폰 NFC 소액 결제로...30억 빼돌린 사기단 검거, 이번 보도는 NFC 결제의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보안 취약성과 신종 금융 사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유령 가맹점을 통한 허위 매출, 해외 신용카드와 스미싱을 결합한 범행 방식, 그리고 수만 건에 달하는 소액 결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부분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해외 카드 결제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범행 수법을 짚으면서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점은 언론 보도의 공익적 역할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책과 명의 대여자까지 검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사건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시청자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가 신종 금융사기의 진화 양상을 알리고,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도가 금융 범죄의 위험을 예방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임태순 위원)	요즘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종 금융 범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		